



일제시기의 썰 디자이너

## “엘리자베스 키스”의 예술세계 ②

### 일제시기 썰의 도안

일제 강점기 시기 최초의 썰은 황해도 해주에서 결핵요양원인 ‘해주구세요양원’을 운영하던 셔우드 홀(Sherwood Hall) 박사에 의해 1932년 12월 3일 발행되었다. 1932년 썰 도안에 대한 박사의 당초 구상은 저복선 도안이었으나 총독부 관리의 반대로 승인이 되지 않자 조선을 상징하는 서울의 남대문으로 수정하였다. 다음 해인 1933년의 도안[그림 1]은 미국의 썰 도안 중 좋은 그림을 채택하기로 하고 1년 전(1932년) 미국에서 발행된 썰 도안[그림 2]인 ‘Children singing Christmas Carols(캐럴 부르는 소년소녀)’를 사용하기로 하였다. 이를 채택한 사유에 대해 박사는 자신의 자서전(Stethoscope in ASIA : KOREA) 446쪽에서 “캐럴은 찬양이나 환희의 노래이므로, 캐럴을 부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건강을 전망하는 좋은 소식을 노래하는 것으로 장차 조선의 결핵 썰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”라고 회고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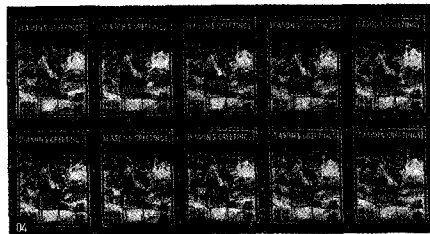
박사는 미국 썰 도안을 준용하기 위하여 미국인 필립 제이콥스(Philip Jacobs)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국립결핵협회(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)의 허락을 받은 후 서울에 있는 YMCA의 화공(畫工)에게 부탁, 해당 도안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편집하여 1933년의 썰로 제작하였다. 이후로 박사는 화가들을 대상으로 썰 도안을 의뢰하였으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키스(Elizabeth Keith) 여사의 경우는 1934년, 1936년, 1940년까지 3년간의 썰을 도안하게 되었다.

### 1934년의 썸 도안

박사가 키스 여사에게 처음으로 1934년의 썸 도안을 의뢰한 사연을 보면, 박사는 자서전에서 “1930년도에 여사는 서울에 있는 홀 박사의 어머니 자택을 거쳐로 정하고 가끔가다 조선을 방문하여 여러 차례 여행을 하였다”라고 기술하고 있다. 이 과정에서 동대문 근처에서 감리교 선교사무실과 관계한 박사의 어머니(Rosetta Hall) 집에 머물고 있었던 영국인 화가인 여사와 자연스럽게 썸 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것이며 박사의 자서전에 의하면 여사가 도안 작성을 자원하였다고 한다.

1934년의 썸인 ‘아기 업은 여인’에 대한 원화(原畵)[그림3]는 채색목판화(원명 Lady with a child/375×433mm)로서 원화의 우측에는 여사의 영문 서명이 있으며 좌측에는 아호(雅號)인 기덕(奇德)과 낙관이 표시되어 있다. 목판화 원화의 국내 소장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식적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고 있는 송영달(宋永達;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 명예교수)님이 1부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.

또한 원화를 이용하여 썸 포스터(345×440mm)를 제작하여 썸 홍보용으로 판매하였는데, 포스터에 아호와 낙관은 없으나 영문서명과 ‘保健’이라는 단어가 인쇄되어 있다. 이 포스터는 필자를 포함하여 국내에 여러 장이 소장되어 있다. 썸 원화를 참고하여 썸[그림 4] 이외 썸 엽서[그림 5], 썸 카드, 썸 연하장(목판인쇄/91×131mm)[그림 6] 등을 다양하게 제작



- 01. 1933년 썸(일제시기)
- 02. 1932년 썸(미국)
- 03. 1934년 썸 원화(목판화)
- 04. 1934년 썸 Pane

하여 판매하였다. 아울러 각각의 그림의 색상과 도안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사는 원화를 기준으로 포스터, 엽서 및 카드, 연하장 등에 대해 그림 수정 및 별도의 채색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.

**1936년의 쌀 도안**

키스여사는 조선 이외에도 일본, 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풍물을 그렸으며, 특히 조선에서는 아이와 부녀자, 각종 민속적인 모습이나 풍광(風光) 등을 화폭에 담았다. 박사는 쌀을 몇 번 제작한 이후 좀 더 활동적이고 화려한 색상의 도안으로 쌀을 제작하리라 생각하고, 조선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나 운동을 소재로 한 널뛰기(1935년), 연날리기(1936년), 팽이치기(1937년), 제기차기(1938년), 그네뛰기(1939년)를 도안하였다. 중요한 사실은 조선의 고유한 민속적인 모습을 쌀 도안으로 결정한 것은 도안자가 아니라 홀 박사였다는 사실이다. 이에 대해 박사는 자서전의 451쪽에서 이러한 본인의 의견을 회고하고 있다.

홀 박사는 “여사가 자청해서 쌀 도안을 그려주었다”고 회고하며, 1936년 쌀은 민속놀이 중 ‘연날리기’를 도안으로 결정하였다. 그러나 1991년도에 리차드 마일즈(Richard Miles)가 출판한 여사의 판화 작품집(Elizabeth Keith : The printed works) 전체를 필자가 확인하여도 1936년 쌀 도안과 동일한 작품은 없었다. 다만 ‘연날리기(Kite-flying)’라는 제목으로 여사가 그린 수채 [그림 7]가 여사의 저서인 올드 코리아(Old Korea)



05\_1934년 쌀 엽서

06\_1934년 쌀 연하장(목판인쇄)



07\_연날리기 수채화  
 08\_1936년 쌀 Pane  
 09\_1936년 쌀 대형포스터(부분)  
 10\_1936년 쌀 연하장(목판인쇄)

16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혹시 이것을 참고로 하여 1936년 쌀 [그림 8]을 디자인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.

1936년의 경우도 1934년과 마찬가지로 쌀 도안과 같은 디자인의 쌀 포스터[그림 9], 쌀 엽서, 쌀 카드, 쌀 연하장(목판인쇄/95×131mm)[그림 10]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. 쌀 포스터의 경우는 쌀 그림만 있는 소형(365×395mm)과 그림 하단에 글씨가 기재되어 있는 대형(365×685mm)의 두 종류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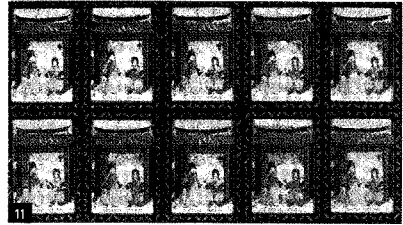
#### 1940년의 쌀 도안

1940년 쌀은 '때때웃 입은 어린이' [그림 11]로 이는 쌀 수집가라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대문(大門)이 없는 미발행 쌀과 연관이 있는 도안이다. 박사의 자서전 내용에 따르면 1940년도 쌀 도안은 당초 대문이 없는 모습이었으나 일제 당국의 도안에 대한 불허로 인하여 대문이 있는 도안으로 수정되었다고 한다. 일제 당국의 강압적 지시로 인하여 도안이 변경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, 여사가 최초로 그린 쌀 원도인 목판화도 처음부터 대문이 없

는 모습일 것으로 예상되나 필자는 상당히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의 원고로 연구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.

1940년의 경우도 썰 도안과 같은 디자인의 썰 엽서[그림 12], 썰 연하장이 있으며, 썰의 원화[그림 13]인 채색 목판화(원명 Two Korean children)는 대형(222×337mm)과 소형(170×239mm)의 두 종류가 있다. 대형은 국내의 김갑중 님이 소장하고 있으며 소형은 필자를 포함하여 국내에 5매 이내가 소장된 것으로 파악된다. 썰 연하장(96×135mm/목판인쇄)은 국내 썰 수집가가 1매를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썰 포스터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, 하세가와 도감에서도 UNK(Unknown ; 미발견)로 표시되고 있다. 박사가 마지막 썰을 발행한 직후인 1940년 11월 추방되었기에 이로 인하여 후시 포스터가 발행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. †



11\_1940년 썰 Pane  
12\_1940년 썰 엽서  
13\_1940년 썰 원화(목판화 소형)

[참고문헌]

- 엘리자베스 키스展 도록(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세계 : 국립중앙박물관 선승혜)
-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(송영달 옮김) 출판사 책과 함께
- Elizabeth Keith the printed works (Richard Miles) 1991년
- Stethoscope in ASIA : KOREA (Sherwood Hall) 1981년
- Dr. Sherwood Hall's X-MAS & new year seals of Korea (Stephen J. Hasegawa) 2006년